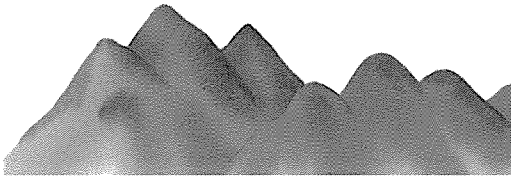


여름철 안전산행



조난은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그러므로 당일 산행 때라도 항상 헤드랜턴, 비상식량, 예비의류, 윈드제킷, 판초 등을 휴대하여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국내 산악조난사고 통계를 보면 46%가 여름철에 집중해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비피해와 관련된 것들이다. 따라서 집중호우에 대한 상식을 갖추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두어야 자신뿐만 아니라 동행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특히 한 팀의 리더인 경우 이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폭우가 쏟아져 계곡물이 불어났을 때는 계곡 주변에서의 야영은 피해야 하며, 등산로도 계곡 옆으로 난 길은 피해야 한다.

야영 중에 호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한밤중 일지라도 즉시 야영지를 철수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혹시나 하는 기대심리는 조난을 유발하는 지름길이 된다

□ 산행시 주의 사항

1. 장대비가 1시간 이상 계속 내리면 집중호우 의심해야

집중호우는 가는 비가 내리다가 중간 굽기의 비를 거

쳐 장대비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만약 중간 굽기의 비가 10~30분 정도 내리다가 장대비로 바뀐다면 그 시각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한다.

이처럼 장대비가 약 1시간 이상 계속 내리면 집중호우라고 생각해도 좋다. 이때 자신이 처해 있는 계곡의 상·중·하류의 위치, 계곡의 길이, 계곡 숲의 울창하기에 따라 위험도는 각기 다르다. 계곡의 상류일 때는 위험도가 덜한 편이지만 계곡의 중·하류는 지계곡에서 많은 양의 물이 집중되어 상당히 위험하다. 조난 사고도 계곡의 상류보다도 중류나 하류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곡 중·상류에 있다고 가정할 때 물이 허벅지에서 허리 정도까지 차 오르면 도하를 반드시 중지하고 비를 피할 곳이나 야영지를 빨리 물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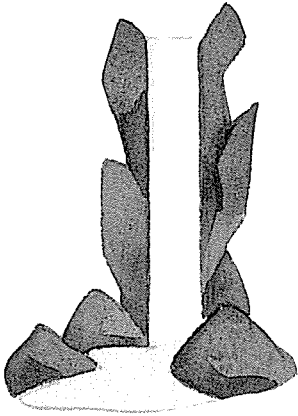
특히 오후 3~4시에 이런 상황에 닥쳤다면 곧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에 야영지를 빨리 선택해야 한다

2. 조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계곡의 중·하류

집중호우가 내리면 조난 사고는 계곡의 어느 부근에서 많이 일어날까?

조난 사고의 대부분은 계곡의 상류가 아닌 중류 또는 하류 부근이다. 그것은 주계곡을 중심으로 지계곡의 물들이 모여 중류를 이루고, 엄청난 양의 물이 하류로 집중된다. 이때 하류에 도착한 이들은 서둘러 민가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려고 무모한 시도를 하다가는 사망 사고를 자초하게 된다.

만약 하류 부근에서 고립되었다면 계류를 건너는 것보다 안전한 곳을 골라 텐트를 친 후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거나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3. 골산이 육산보다 물이 더 빨리 빠진다

산행 전, 한 가지 명심할 것은 큰 비가 내렸을 경우 육산과 골산에 따라 물이 빠지는 속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설악산 같은 골산은 큰비가 오면 물이 빨리 불어나는 대신 비가 그치면 그 만큼 계곡의 수량도 급히 줄어든다. 골산의 경우 비가 온 뒤, 약 반나절이 지나면 사람이 건널 정도가 된다.

그러나 지리산 같은 육산일 경우 계곡의 물이 늦게 불어나는 반면 물은 오랜 시간이 지나 다음 줄어든다. 계곡 하류에 이를 수록 이 같은 현상은 심해진다.

따라서 부딪친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을 잘 내리고 산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가름해야 한다.

4. 야영할 경우

선택할 야영지는 첫째 계곡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둘째 되도록 평평한 곳이 좋고, 셋째 낙석과 산사태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바닥을 고른 후, 판초나 넓은 비닐을 꺼내 끈으로 묶은 다음 그 아래 있으면 생각보다 안락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만약 텐트를 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만났다면 아예 텐트를 치고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천으로 된 덧 씌우개 대신 비닐을 텐트 위에 덮는 행위는 자칫 환기구까지 막아 질식사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5. 제2의 대피장소 사전에 파악해야

텐트를 치고 배수구를 뚫었다면 사전에 제2의 대피할 장소와 계획을 미리 세워둬야 한다. 그 이후 체온을 덥히기 위해 버너에 뜨거운 차를 끓이거나 식사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비가 계속 내린다면 꼭 필요한 물품을 제외하곤 모든 물건들은 배낭에 넣어두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이때 비가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내릴 경우 우선 가지고 있는 식량과 연료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상황 판단이 끝났다면 가지고 있는 부식으로 식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비가 계속 내릴 것에 대비해 식사량을 평소의 2분의 1이나 3분의 2 정도 줄여야 한다. 연료의 사용도 몸을 잠깐 덥히는 것 이상으로 쓰면 안 된다. 밤이 오더라도 잠을 자는 것보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 또한 당번을 정해 밖으로 나가 계곡 물의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 만약 텐트 앞에서 10여m 부근까지 물이 찼다면 빨리 집을 정리해 제2의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7**

(자료제공 : 진해소방서)